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섬김 [빌립보서 1:1-2]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요즘 시대에 편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시대 때로 별 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의 성도들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쓴 어떤 편지들보다 밝고 부드러운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엔 찬양과 담대함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형식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공적인 서신서였지만 직접 만나 얼굴을 대면하며 대화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있습니다. 글쓴이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도 역시 나중에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디모데와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본문에서 디모데는 하인으로 묘사됩니다.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하인보단 종이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동등했습니다. 둘 다 종이였으며 또한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복음 사역이며 동일한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왕국을 위해 준비돼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그 분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모든 삶과 방향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였습니다. 이 무리 속엔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17)], 행악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빌립보서 3:2)], 항상 분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2)]. 이들 모두는 성로로 불렸습니다. 성도란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란 다른 이들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함과, 그 분의 심성과, 그 분의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역시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형벌과 속박과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죄 없이 창조 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던 것같이--- 우리를 회복케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의 일터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였습니다. 리디아와 같은 사업가를 만나보셨습니까? 14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14), 이 로마군병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13), 이 여종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사도행전 16:16). 우리는 우리의 삶 터와 일터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기쁨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유로

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자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되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확신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십니다. 서신서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사를 하는 사람과 그가 전한 선물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서 1:2).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과, 사랑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힘이 다 같이 조화롭게 합쳐져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라는 무궁무진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전과 동일하게 변치 않는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이 두 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둘 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